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 열린다

29-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60개 기업 250여명 채용 외투기업 채용 설명회·스탬프투어 등 부대행사도 다채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29일부터 2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재를 찾는 광주·전남 우수기업과 유능한 구직자 만남의 장인 '제5회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는 광주·전남 우수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지역 에너지밸리기업, 코트라(KOTRA) 외투기업, 우수 기업 등 60개 사가 참여해 인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총무, 일

반사무원, 전기부품 조립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25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가를 바라는 구직자는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 커뮤니티, 알림마당에서 참가 기업 현황과 기업별 채용 사항을 확인하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750-7700)로 사전 참가 신청을 하거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해 박람회에 참여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 제공과 현장 면접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취업을 제고해 기대된다.

박람회에선 광주시와 전남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신종년 일자리정책과 각종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 박람회 스탬프투어 이벤트,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힐링상담테라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광주·전남 상생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고용노동청,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해 인력난 해소 및 취업을 제고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박람회를 찾은 기업, 기관, 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홍보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광주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 방향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광주시는 또 이번 행사에서 '광주일자리 플랫폼'을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 광주시는 일자리 매칭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광주일자리 플랫폼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최대범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 우수기업과 지역 인재가 활발히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박람회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력을 갖춘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전남 귀농어귀촌 10년 연속 4만명 ↑

지난해 4만454명...40대 이하 56%

전남도는 25일 "대도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 증가 등으로 전남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4만여명을 웃돌고 이 가운데 40대 이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통계청의 2022년 귀농어귀촌 인구를 분석한 결과, 전남 귀농인은 1천967가구 2천523명, 귀어인은 277가구 388명, 귀촌인은 2천198가구 3만1천543명으로 총 3만2천127가구 4만454명이 전남으로 유입됐다. 전남 귀농어귀촌 인구는 2013년 통계청 발표 이래 10년 연속 4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비록 전년도보다 3천784가구(6천109명) 줄어든 규모지만, 이는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8년 만의 최저치

를 기록하며 2021년보다 14.7% 감소했고 주택 거래량도 49.9%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귀농어귀촌 인구가 줄어든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전남지역 귀농어귀촌 가구 중 40대 이하가 2만2천479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이 많은 이유는 농어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전남도의 정책 성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권역이나 연구지 등 익숙한 곳,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활발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귀어·귀촌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준비에서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귀농어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다함께 요가를...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UN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세계 요가 축제'가 지난 24일 오후 광주 동구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주한인도문화원, 대한요가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인도 전통요가를 함께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DJ센터 제2전시장 건축설계 공모

시, 30일까지 접수...10월 초 선정

광주시는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 기본설계 공모를 지난 2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공모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작품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은 제1주차장 부지 1만8천922㎡에 연면적 4만6천㎡ 규모로 총사업비 1천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기본설계에 참여할 응모자

를 오는 30일까지 등록받고 심사를 거쳐 10월 초 당선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호남권 대표 마이스(MICE)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동률 70% 이상의 포화 상태였다. 대형 국제 마이스 행사 유치에 위해서는 전시장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김성배 관광도시과장은 "제2전시장이 건립되면 마이스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많은 작품이 응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광주기독병원 선정

9월1일부터 평일·휴일 24시까지 소아경증환자 진료

광주지역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광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25일 "우선협상대상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 협상을 지난 22일 마무리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조건 충족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

된 광주기독병원은 평일과 휴일(토·일·공휴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사업 기간(2023년 9월~2025년 12월) 광주기독병원에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적 보조비용으로 시비 28억8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기독병원은 나머지 경상적 사업

비 5억3천여만원과 발생하는 자본적 경비 전액을 자체 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강기정 시장의 '손에 잡히는 변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오픈런' 진료대란,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연' 등 위기를 맞은 소아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선정으로 지역 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

일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최소화하고 소아경증환자 분산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로컬어린이병원-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24시 이후 발생하는 중증응급소아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지역완결적 어린이 안심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추진

시, 산림청 공모 선정

광주시는 25일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제2차 공모사업'에 광주 해피키즈어린이집 등 전국 6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엔 선정된 광산구 해피키즈어

린이집은 국비와 지방비 7천만원의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보육실, 복도 등을 편백나무 등 국산 목재로 새단장해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적으로 개선된 실내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국산 목재를 사용한 친환경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는 등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